“하루에도 열두번 포기할 뻔 다 내려놓고 연기 했어요”

‘군검사 도베르만’서 악역 오연수 “엄마·사모님 아닌 캐릭터하고 싶어 악역은 너무 힘들어 당분간 사양”

tvN 드라마 ‘군검사 도베르만’에서 악역을 맡은 배우 오연수. /연합뉴스

“저한테는 정말 모험이었어요. 악역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은 계속 있었는데, 막상 하려니 하루에도 열두 번씩 ‘못 한다고 말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저를 내려놓고 연기했어요. (웃음)”

1989년 MBC 19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오연수가 배우 인생 33년 만에 처음으로 악역에 도전했다. 그것도 창군 이래 최초의 여자 사단장 역할이다. 최근 종영한 tvN 월화드라마 ‘군검사 도베르만’에서 빌런 끝판왕인 노화영으로 이미지 변신에 성공한 오연수를 지난달 28일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16부작 내내 칙칙한 군복에 화장기가 거의 없는 얼굴로 미소 한번 짓지 않던 오연수는 분홍색 바지 정장을 입고 화사하게 웃어보였다. 군인 역할을 위해 짧게 자른 머리 스타일도 짙은 갈색으로 염색하니 여성스러운 기존 이미지가 살아났다.

오연수는 “캐릭터는 너무 매력적인데 자신이 없어서 고민이 너무 많았다”며 “오랜만에 하는 작품인데 누구의 엄마나 부잣집 사모님처럼 예전에 했던 역할보다는 새로운 역할을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노화영은 야망이 넘치는 인물로 비상한 머리와 사람을 복종하게 만드는 카리스마를 지닌 인물이다. 자신을 시기하는 남자 육사 동기의 얼굴을 남자 화장실 변기에 처박고, 하나뿐인 아들에게 안전핀을 뽑은 수류탄을 손에 쥐여주고 한 시간을 꼼짝 못 하게 하는 벌을 주기도 한다.

오연수는 “악역도 부담스러운데 계급체계 꼭대기에 있는 군인인데다 사이코패스 같은 부분도 있다”고 캐릭터를 설명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자신의 야망을 위해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노화영을 두고 제작진에게 ‘도대체 이 여자가 어디까지 올라가려고 이러는 거냐’, ‘대통령이라도 되고 싶은거냐’라고 묻기도 했다고 했다. 그만큼 노화영은 이해하기 어려운 캐릭터였다고 했다.

오연수는 “노화영은 군인 집안에 여자인데다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짧게 태어났다는 이유로 아버지에게 버린 자식 취급을 받았고, 새어머니에게도 구박을 당했다는 전사(前事)가 있는 인물”이라며 “어렸을 때 존재를 부정당한 서러움 때문에 성공에 대한 지독한 갈망이 생긴 것 같다”고 설명했다.

오연수는 노화영을 가장 잘 보여준 장면으로 8화 엔딩을 꼽았다. 노화영이 원기춘의 멀쩡한 다리를 자른 뒤, 식당에서 핏물이 떨어지는 스테이크를 먹으며 용문구에게 “내가 잘랐어”라고 말하는 장면이다.

“아랫사람을 군홧발로 짓밟고 이런 건 다른 남자 군인 악역들이 해왔던 행동들이잖아요. 노화영에게는 그걸 뛰어넘는 뭔가가 있어야 할 것 같았어요. 이 장면을 찍으면서 감독님께 사이코패스처럼 웃어보겠다고 했죠. 노화영의 캐릭터를 시청자들에게 확실히 각인시켜 준 것 같아서 만족해요.”

무엇보다 노화영이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은 모성애라고 했다.

오연수는 “사실 저는 아들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는데 노화영은 모성애가 없다”며 “마음속에 조금은 있긴 한데 표현하기 싫어해서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아들) 태남의 손조차 잡지 않는다. 약해 보이기 싫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마지막에는 모든 악행이 드러나 사형 선고를 받게 된 노화영의 결론은 아쉬우면서도 이해가 간다고 했다. 원래 노화영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었지만, 드라마 후반부에 가면서 결말이 바뀌었다고 했다.

‘군검사 도베르만’은 오연수가 2014년 ‘트라이앵글’ 이후 긴 공백기를 깨고 복귀한 드라마여서 더 반갑기도 했다.

오연수는 “‘다시 일을 못 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은 안 했지만, 이렇게 오래 쉴 줄은 몰랐다”며 “배우라는 게 불러주지 않으면 못 하는 직업이다 보니, 이렇게 다시 불러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작품에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지 않더라도 사람들 뇌리에 계속 남는 노화영처럼 확실한 캐릭터를 하고 싶다”며 “다만 악역은 너무 힘들어서 당분간은 하고 싶지 않다”며 웃었다.

/연합뉴스

장민호, 신곡 ‘회초리’ 발표…어머니 향한 그리움 담아

‘미스터트롯’ 출신 가수 장민호가 1일 새 디지털 싱글 ‘회초리’〈사진〉를 공개한다고 소속사 호엔터테인먼트가 밝혔다. 올해 1월 발매한 첫 미니음반 ‘에세이 ep.1’ 이후 4개월 만의 신작이다.

장민호는 이 곡에서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을 특유의 애절한 감성으로 담아냈다.

이 곡에는 ‘막걸리 한 잔’, ‘붓’ 등으로 이름을 알린 작곡가 류선우가 작업했으며 서영도(베이스), 신석철(드럼) 등 최고 수준의 연주 세션이 참여했다고 소속사는 전했다.

장민호는 1997년 아이돌 보이그룹 ‘유비스’로 가요계에 데뷔했다.

2011년 트로트 가수로 전향한 뒤 ‘남자는 말합니다’, ‘드라마’, ‘내 이름 아시죠’ 등의 곡을 발표한 그는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큰 사랑을 받았다. /연합뉴스

제 67회 호남예술제 입상자 명단

피아노 입상자

〈심사위원〉
유정아(광신대 교수)
구재향(호남신학대 교수)
신수경(전남대 교수)
허정화(순천대 교수)
선수정(경상대 교수)

◇ 피아노 중등부 1,2학년
▲ 금상
2 이지혜(금호중앙중1)
36 양채원(광주예술중1)
45 위라은(광주예술중1)
49 마린(군산동산중1)
52 정소윤(광주예술중1)
▲ 은상
3 이서연(나주금천중1)
28 윤가연(광주예술중1)
31 이채은(일동중1)
40 이상유(악양중2)
47 윤수완(광주예술중1)
48 박수현(광주경신중2)
▲ 동상
12 김가은(상무중2)
17 이예서(월곡중1)
21 김채윤(광주예술중1)
22 최윤서(용봉중2)
23 전승아(광주예술중1)
35 박규량(숭일중2)
39 김가원(광주예술중1)
46 김민희(봉산중2)
51 김다희(광주경신중2)
53 장진경(광주동신여자중2)

◇ 피아노 중등부 3학년
▲ 최고상
27 박가인(목포애향중3)
▲ 금상
4 정현주(일신중3)
▲ 은상
3 임하연(전주예술중3)
6 양준혁(신용중3)
13 송하영(일신중3)
18 윤태강(치평중3)
24 김채연(목포옥암중3)
▲ 동상
7 김도근(군산영광중3)
9 김채운(비아중3)
17 양다영(정일중3)
20 이서은(비아중3)
22 오현지(신창중3)

◇ 피아노 초등부 1,2학년
▲ 최고상
62 김지윤(광양중마초2)
▲ 금상
7 김지인(순천성동초2)
12 윤세아(전주지곡초2)
13 박채영(목포부주초2)
24 차하담(치평초1)
51 김해율(불로초2)
54 김미소(광양중앙초1)
60 신수비(일동초2)
63 박도영(광주효덕초2)
65 천서윤(마동초2)
▲ 은상
1 송지아(빛고을초2)
2 장주현(하리숲학교2)
10 김하령(광주삼육초2)
16 박수호(목포영산초1)
19 황서준(목포영산초2)
26 조지승(운리초2)
35 임정민(불로초2)
38 최서윤(광주교대광주부설초2)
39 서은유(불로초2)
50 김시온(대자초2)
57 한서윤(불로초2)
59 이서현(전주장동초2)
66 최은솔(광주학운초2)
67 김민선(조봉초2)
69 김태건(마동초2)
▲ 동상
5 김지태(태봉초2)
8 박경원(불로초1)
11 류시우(운천초2)
15 박채윤(운천초2)
17 나하윤(광주송원초2)
22 박예나(광주운암초2)
25 신서유(살레시오초2)
28 박효아(송정중앙초2)
29 박주한(광주상무초2)
36 안수연(서광초2)
48 김재이(수완초2)
56 김서율(광주교대광주부설초2)
61 한서연(불로초2)
72 손은우(라온초2)
73 선다연(광주상무초2)
75 주아진(담양동초2)

※ 장려상 입상자는 호남예술제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지리산 화엄사, 28일 요가대축제

인도 요가·전통춤 까탁 체험

인도인들이 직접 참여해 요가와 인도 전통 춤인 까탁(이야기꾼)을 선보이는 요가대축제가 열려 눈길을 끈다.

지리산 화엄사(주지 덕문스님)는 오는 28일 화엄사 각황전, 대웅전, 보제루 앞마당에서 요가대축제를 연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요가대축제는 오는 6월 21일 세계 요가의 날을 앞두고 사전 행사 형식으로 진행된다.

‘화엄, 하나 되다. 화엄, 빛이 되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요가대축제는 지난해에 이은 두 번째 행사로, 한 단계 보완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사찰음식 체험과 사사자삼층석탑 사진대회, 어머니이 길 체험, 구층암 차 체험에 인도 요가를 체험할 수 있는 공연순서를 넣어 한국에 거주하는 인도인들이 직접 참여, 요가와 인도 전통 춤인 까탁(이야기꾼)을 선보인다. 또한 주한 인도 대사(스리프리야 란가나탄)가 참석할 예정이다.

세계요가의 날 홍보 사진 〈화엄사 제공〉

아울러 이번 축제는 화엄사만의 행사가 아닌 천은사, 사성암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은 물론 이주민들을 우선순위로 홈페이지를 오픈해 참가자 접수를 받는다.

일반인 참가자는 화엄사 홈페이지로 접수가 가능하며 아동을 동반할 경우, 10세 이상이면 된다. 문의 010-9091-0000.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